

전국체전 선수단 5·18 참배 행렬

미국·독일·영국·호주동포 등 방문...참배객 평소보다 50% 늘어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영국동포 선수·임원 등이 9일 오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제88회 광주전국체전을 맞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 해외동포와 각 시도 선수단 등의 참배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영국동포선수단 4명은 9일 오후 5·18 민주묘지를 찾아 분향한 뒤 박관현 열사, 조아라 여사 등의 묘를 둘러봤다. 이날 오전에도 호주동포선수단 120명이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전날에는 미국(150명)과 독일동포 선수단(80명)이 방문, 열사들의 넋을 기렸다. 오는 11일에는 해외동포 호남향우회 회장 일행 40여명이 참배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광주체전에 참석한 자치단체장과 체육 관련 주요 인사들의

참배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일행 20명이 5·18 민주묘지에 헌화했고,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세찬 비가 내린 지난 7일 오전에도 이어져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일행 20여명이 참배 행렬에 동참했다.

문월순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소의 전과장은 "전국체전이 시작된 이후 평일 하루 평균 참배객(1천명)보다 50% 정도가 늘어난 1천500여명이 다녀가고 있다"면서 "참배에 대한 문의 전화도 쇄도해 남은 전국체전 기간동안 참배객들의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국악·비보이 '어울림 공연'

오늘 충장로 축제 무대에서 함께 흥 돋워

'2007 충장로 축제' 이틀째 날인 10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특설무대에서 국악과 비보이(B-boy)의 화려한 춤이 한데 어울린다.

전주시립국악단(지휘자 신용문 우석대학교수)은 이날 오후 3시에 금남로 분수대 앞에 설치된 특설 무대에서 비보이 팀인 '이스트 기네스'와 함께 공연을 펼친다.

국악 관현악단 50여 명이 연주하는 '고공비행' 노래에 맞춰 6명의 비보이가 역동적인 춤사위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손과 입을 이용해 리듬을 맞추고

소리를 내는 비트박스(beat box) 전문가 최성원씨가 흥을 돋운다.

무대는 세상을 깨우는 북소리로 막을 연 뒤 4명의 무용단원이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궁중무용인 '태평무'를 추고, 신민요 '동해마다 각시풀' 등 민요 공연으로 구성된다.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지난 1987년 초연해 인기를 끈 사물놀이 '신모듬'이 1시간 동안 펼쳐질 이번 공연의 화려한 막을 장식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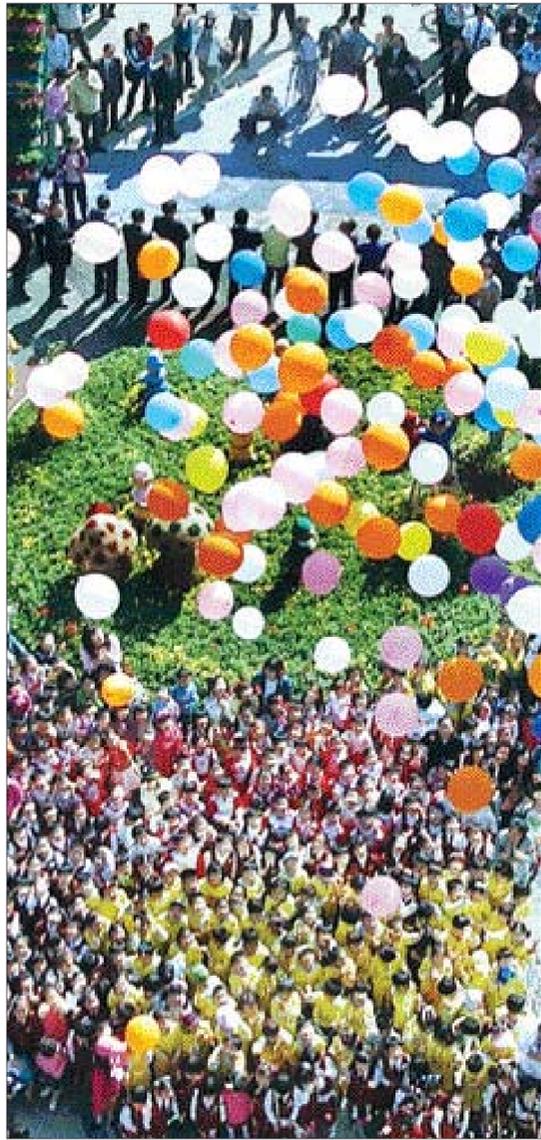
광주시내버스 임금협상안 부결

광주 시내버스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시내버스 노조는 8~9일 이틀 동안 전체 조합원 1천329명 중 1천99명을 상대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의 60.5%(665표)가 반대해 합의안이 부결됐다고 9일 밝혔다. 노사는 지난 5일 교섭에서 5천906원인 시급을 1.4% 인상(기본급 대비 6.9% 인상)하고 주당 40시간 근무 등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노조는 10일 사측과 재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잠정 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준공영제 도입 후 돌아온 노사 간 분위기가 다시 가라앉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gilee@kwangju.co.kr



9일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제18회 국화축제'에서 1천 여명의 시민들이 제88회 전국체전 성공을 기원하는 풍선을 날리고 있다. 오는 16일까지 열릴 이번 축제에는 국화와 선인장 등 100만 송이를 비롯한 맷돌과 배를 등 골동품(50점)·풍선작품(100점)·한지 공예작품(150점) 등이 전시된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도토리·은행열매 불법 채취 단속

무등산의 도토리, 도심의 은행 열매를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걸리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광주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야생동물의 먹이로 쓰이는 도토리·은행 열매를 무단 채취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일부 무등산 등반객들이 도토리·은행 열매 등을 무분별하게 채취, 야생동물이 겨울철에 필요한 먹이를 구하지 못해 굶어 죽거나 민가로 내려와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일 이모(62)씨가 무등산 원효사 지구 안양계곡에서 도토리를 줍다가 공원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적발되는 등 이달 들어 5건이 적발됐다.

무등산 관리사무소는 수시 단속을 벌여 위반자들을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을 물린다. 방침이다.

광주시는 또 최근 급남로, 중앙로 등에서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은행 열매 따기 위해 장대로 나무를 후려치거나 돌을 던지는 등 은행나무를 훼손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이종형 기자 gilee@kwangju.co.kr

지방세 고액 체납자

부동산 공매 등 압박

광주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바짝 압박하고 있다.

광주시는 9일 '취득세·주민주세 등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31명'으로부터 압류한 부동산 59필지(36억 원 상당)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달부터 매달 300만원 이상 체납자 100여명을 선별해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귀금속·고가의 스포츠용품·가구나 가전·사무실 집기 등도 압류할 예정이다.

시는 체납자가 생활형편이 어려워 분할납부를 원하면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다.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엔 모든 재산을 압류·매각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시의 체납 지방세는 998억원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8월 모두 18억여원을 체납한 203명에게 압류 부동산 공매를 예고해 2억5천여만원의 체납세를 받아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북구청 광장 국화축제

9일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제18회 국화축제'에서 1천 여명의 시민들이 제88회 전국체전 성공을 기원하는 풍선을 날리고 있다. 오는 16일까지 열릴 이번 축제에는 국화와 선인장 등 100만 송이를 비롯한 맷돌과 배를 등 골동품(50점)·풍선작품(100점)·한지 공예작품(150점) 등이 전시된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생활안내		신고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가정부동산 보건복지부(서울) 671-4050 광주 YWCA 527-0011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민안심 1388 국세청 국세청 1588-0060 법무인원상담 광주전남법무청 1588-9090 소비지 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부고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소 369-9881	학교폭력 국민안심 112 광주경찰청 222-0112 전남경찰청 366-0112 광주지검 233-2828 사이버테러 02118 가정폭력 여성긴급국번없이 1366 여기동우사대 (89) 229-0118 (89) 367-011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이동학대예방센터 1391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1389	상담 명진번호새(10일) 주동기 232-0082 법무사회 법률상담(10일) 김민성 370-0600

■ 광주지방경찰청 개청 100일

범죄 줄고 검거율 높아져 도시형 치안 서비스 기대

광주지방경찰청이 지난 7월1일 개청한 이후 100일 동안 강력범죄 발생은 낮아지고, 검거율은 높아지는 등 도시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정착이 비교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청 이후 지금까지 100일 동안 광주 시내에서 발생한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발생 건수는 모두 5천4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2건이 줄었다.

광주경찰은 이 중 3천561건의 범죄를 해결, 검거율도 전년 대비 5.4%포인트 증가한 64.8%를 기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사건의 경우 작년 9건 발생에서 올해는 5건

으로 줄었으며, 강간도 92건에서 65건으로 감소했다. 절도와 폭력도 각각 2천787건, 2천788건에서 2천 630건, 2천740건으로 소폭 줄었다.

반면, 강도사건은 발생이 27건에서 47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검거도 18건에서 41건으로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자권 위어민 감사 채우

▲이명화가 작품 위작·판매 ▲이용 사형회 비리 ▲조달청 전자입찰 조작 ▲초등학생 유괴 사건 등을 빠르게 해결하면서 기획수사 능력도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형성 게임장 및 성매매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강력 단속에 나서 큰 성과를 거뒀으며, 이웃사랑 봉사활동도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강력사건 해결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 피살사건 ▲초등학생 납치사건 등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던 일부 사건들은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북부경찰서의 분할 문제도 개청 이후 답보 상태다. 도시 치안서비스가 전남경찰청 시절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점도 광주경찰이 안고 있는 과제로 남아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하반기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더욱 충실한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저도 가스활명수 좋은거 다 알아요!!”

겉지고 뒤편지 다 소화시키는거 아니잖아요.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저는 그럴 땐 가스활명수만 마셔요. 소화에 좋은 11가지 생약성분까지 있으니까 - 부채표 가스활명수 좋은거 저희도 다 알아요

11가지 생약성분 소화제 -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소화를 돕는 가스활명수의 11가지 생약성분 : 아산화, 고추틴크, 계피, 육두구, 현호색, 정향, 창출, 건강, L-Menthol, 진피, 후박

11가지 생약성분 - 부채표 가스활명수큐